



## < 녹취문 >

과제명	2025년 미추홀학산문화원 <'옛)동양제철화학과 학익동, 용현동 일대의 변화'>		
구술자	최기숙(자영업 종사자)		
면담자	정지선	면담지원자	강인형
면담일시	2025. 07. 01.	면담장소	학산문화원 동아리실 2
녹취문 작성자	정지선	회차	1회차

### 1. 인사 및 개인 신상 (00:00:05 ~ 00:04:11)

면담자: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랑 나이 또는 생년월일을 알려주세요.

구술자: 이름은 최기숙이고요, 생년월일은 호적상 73년인데 원래 태어난 건 72년 8월.

면담자: 태어난 곳이 어디세요?

구술자: 학익동 어디라고 그래야 되지?

면담자: 주소는 기억 안 나시는 거죠? 현재 어디쯤인지요?

구술자: 현재 GS랑 농협 사이 길.

면담자: 아! GS 슈퍼마켓과 농협 사이? 옛날에 거기에 집이 있었나보네요?

구술자: 어. [지도를 보면서] 여기에 개천이 있었는데 그 옆에. 여기를 어디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해변?

면담자: 근데 그거(해변 식당)는 약간 뒤쪽에 있었는데?

구술자: 아니 지금 해변 말고.

면담자: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맞은편. 고기집이랑 같이 있었던.

구술자: 어. 맞아. 거기 보면 옛날에 김밥.

면담자: 네. 코너에 김밥집이 있었어요.

구술자: 어. 거기 어디쯤인 것 같아요. <sup>1)</sup>

면담자: 아. 그러니까 그 개천은 학익천이었나봐요? 어딘지 알겠네요. 그러면 GS 슈퍼마켓이랑 농협 사이가 아니라, [지도를 보며] GS 슈퍼마켓은 여기 있고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신 데는 그 해변이 골목 안에 있었어요. 해변이랑 고깃집도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밥집은 여기고. 학익천은 여기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려왔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태어난 곳은 지금은 SK아파트가 들어와 있지만 예전으로 치면 스시향 건너편에 있던 골목길 안쪽에 있는

1) 태어난 곳에 대한 정보는 구술자의 큰 언니로부터 '학익동 536번지'로 수정되었음(2025년 7월 31일에 진행된 녹취문 검수 과정에서 구술자가 수정 요청함). 구술자는 현재 주신자동차학원 근처 절벽 아랫마을에서 태어났고, 구술자가 인터뷰 당시 말한 태어난 곳은 막내 동생이 태어난 곳이라고 함.



곳에서 태어났다는 말씀이신거죠?

구술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면담자: 거기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구술자: 거기서 살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학익동 어디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는 내가 정확히 몰라. 양토 마을 좀 못 올라가서라고 그랬어.

면담자: 그럼 이쪽 언덕?

구술자: 내가 아장아장 걷고 막 이럴 때 양토 마을 조금 못 가서 있는 곳으로 이사 갔다가 엄마가 아파서 바로 시골 가서 있다가 와서 잘 몰라.

면담자: 그럼 그때 기억은 거의 없으시겠네요?

구술자: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면담자: 그러면 학익동에 대한 기억이 남는 나이가 몇 살 때쯤인지 혹시 아실까요?

구술자: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 왔다고 해서 그때 인천에 왔지.

면담자: 아.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살다가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를 받아서 다시 와서 거주한 곳은 여기 홈플러스 앞이었던 거예요?

구술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72년에 태어나고 호적에는 7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72년생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왔는데 통지서가 안 나와서 알아보니깐 73년으로 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7살 때 와 갖고 1년 동안 인천에서 그냥 있다가 학교에 들어간 거죠.

면담자: 그때 학익동 홈플러스 앞에서 살고 계셨다는 거죠?

구술자: 네. 여기 살고 있었어요. 여기가 용현동이잖아? 홈플러스 여기가 용현 5동.

면담자: 네. 맞습니다. 용현동일 거예요.

구술자: 용현 5동 606번지.

## 2. 초등, 중등 시절 놀았던 이야기 (00:04:12~00:06:06)

면담자: 사전에 전화로 통화할 때, 이쪽에 살면서 선생님이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다고 하셨는데 그 당시 이 지역의 풍경에 대해 기억이 나시는 게 있을까요? 자세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게 있었어. 여기 갔어.’ 요 정도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구술자: 우리 집 뒤에 거기가 골목이 3개인데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골목 뒤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많이 놀았고, 그다음에 고 바로 옆에 유공 후문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유공 내부에 기차길이 있어서 기차가 다녔는데, 기차가 하루에 세 번 석탄 싣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게 들어오는 시간에 들어오고 나가려면 시간이 한 30~40분 걸려. 그때 들어가서 거기에서 썩도 깨고 냉이도 캐고 그랬어. 그리고 기차 지나가기 전에 철길에다가 못이랑 병뚜껑이랑 빨간 벽돌 같은 거 올려놓고 그걸로 소꿉놀이도



했는데, 빨간 벽돌은 고춧가루라 했어. 그때는 소꿉놀이라 하면 요즘처럼 도구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돌하고 나뭇잎하고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릇이라 하고, 고춧가루 뺏는다고 하고 벽돌 뺏아서 풀에다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놀이도 하고, 그리고 인하대학교 가가지고 좀 놀고.

### 3. 용현동, 학익동 동네 풍경 & 초등학교 가는 길에 대한 추억 (00:06:07~00:11:47)

면담자: 인하대학교가 당시에 있었어요?

구술자: 있었죠. 지금까지 학익동에 남아 있는 게 인하대학교, 학익초, 감초약국 그리고 GS 옆에 조그만 동방 한의원<sup>2)</sup>인가?

면담자: 네. 한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술자: GS 슈퍼 있고 그 옆에 코코 이비인후과가 있고 조그마한 동방 한의원인가 무슨 한의원이 있는데, 그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면담자: 감초는 약국이었어요?

구술자: 감초는 제일 오래된 한의원이었어. 그리고 초등학교 있었고. 이때가 1980년대 초지. 내가 86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면담자: 학익초등학교에 다니셨을까요?

구술자: 아니요. 용현초등학교 다녔어요.

면담자: 용현동이 집이라서 그랬나보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우리가 학익동 살 때 큰언니랑 둘째 언니는 학익초등학교를 나오고, 둘째 언니가 학익초를 다니다가 5학년 때 전학을 가서 용현초를 나오고 그다음에 나, 동생하고 셋째 언니하고는 다 용현초를 나오고 그랬어요.

면담자: [지도를 보면서] 여기 있네요. 용현초가 이쪽 어딘가에 있어서 좀 멀어 보이는데, 걸어서 다니셨을까요?

구술자: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때도 우리가 우리 집에서 나와서 철길을 따라서 쪽 가서 지금 어디 아파트지? 거기 아파트가 유원 아파트<sup>3)</sup>인가? 철길 따라서 쪽 가서 고속도로 밑에?

면담자: 굴다리?

구술자: 응. 굴다리 있는 데까지 철길이 쪽 일자로 이어졌는데, 거기서 꺾어져서 내려와서 유원 아파트로 해 갖고 학교를 갔어.

면담자: 멀리 다니셨네요. 그러면 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학교를 다니신 거네요?

---

2) 동남 한의원

3) 구술자가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도를 참고하니 유원 아파트가 아니라 동아 아파트로 확인됨. 이후에 나오는 유원아파트는 모두 동아아파트를 말하는 것임



구술자: 그렇죠.

면담자: 고속도로를 봤을 때 느낌은 나중에 꼭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술자: 네. 알겠습니다.

면담자: 학교까지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한 40분은 걸으셨을 것 같은데?

구술자: 30~40분 정도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멀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고모네도 걸어 다니고 해 갖고. 그때는 버스 타는 것보다 걸어 다니는 게 더 편했으니까.

면담자: 용현 초등학교까지 다니면서 그 일대를 봤던 풍경들이 기억나시나요? 유원 아파트 쪽으로 갔으면 사택 같은 것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런 거를 봤던 풍경들은 기억이 나시나요?

구술자: 사택이 있었죠. 학교 갈 때 그 철길을 따라서 가면은 이쪽으로는 지금 저기 뭐야 SK 쪽 거기에 가정집들이 있었고, 그 뒤애가 도로였는데 지금도 거긴 도로고, 중간에 집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뒷길에 철길이 있었고 그 옆에는 개천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거기에 밭이 있었어요. 밭이 짝 있고 밭 옆에 개천이 있었어. 개천이 좀 높았어요. 그래 갖고 우리는 철길 따라가고 가다가 학교 끝나고 올 때는 밭에서 무 같은 거 뽑아서 흙 털어서 먹고 그랬어요.

면담자: 무 서리를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구술자: 네. 그때는 서리인 줄 모르고 그냥. 특히 가을에는 무가 좀 자라면 하얀 부분이 반 정도 나와 있는게 보였어요, 그리고 굴다리 밑에 방방이 있었고.

면담자: 그때 방방을 타셨던 거예요?

구술자: 글썸. 방방은 돈이 없어서 못 탔는데, 어찌다 한 번씩 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굴다리 지나서 그쪽으로 갔다가 돌아서 학교 앞쪽으로 오면 또 굴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는 유원 아파트로 오니까 굴다리 안 넘어가고 이쪽으로 해서 내려올 때 거기에 군부대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군부대였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에 이렇게 문 큰 문 같은 게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유원아파트가 없었고 그냥 가정집들이 있었어요. 가정집들이 있어서 집들 사이로 학교로 갈 수 있는 골목이 다 있었던 거야. 그리고 학교 앞에 항상 내가 거기 지나가다 보면 '오뚜기 문구'라고 친구네 집이 하던 가게가 있었어. 지금은 없어졌어, 그리고 다른 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근처에 예전에 봤던 집 하나는 그대로 있더라고. 까만 대문인데 거기는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그 집은 그대로 있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그 집을 굉장히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면담자: 아. 아직도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구술자: 어. 나도 그거 보면서 신기하다고 생각했어.

#### 4. 동양화학과 연결된 카바이트 공장에 다니셨던 아버지 (00:11:48~00:14:14)

면담자: 초등학교는 그렇게 용현동 일대에서 다니셨고, 그러면 그때 제가 얼핏 듣기로는 선생



님께서는 어렸기 때문에 동양제철화학이라는 거를 잘 몰랐지만, 여기에 아시는 분이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을까요?

구술자: 그때는 동양을 동양화학이라고 했는데, 동네에 동양화학이 있었고 우리 아버지가 동양화학을 다녔는 줄 알았는데 동양화학이랑 연결된 그때는 '카바이트 공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면담자: 카바이트 공장이 그 근처에 있는 공장이었나 봐요?

구술자: 동양화학 바로 옆에 있었어요.

면담자: 아! 거기를 다니셨구나.

구술자: 응. 아버지가 거기에 반장도 하고 지게차도 몰고 뭐 이런 거였고, 고모부를 소개시켜 줘서 고모부도 거기에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면담자: 정확한 회사 이름은 기억이 안나시는지요?

구술자: 그냥 어른들이 카바이트 공장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

면담자: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잘 모르고 그냥 카바이트라고만 기억하시는 건가요?

구술자: 지게차로 판넬 같은 것도 옮기고 막 그랬던 거로 기억해요.

면담자: 아버님께서 오래 근무 하셨을까요?

구술자: 아버지가 오래 근무하긴 했는데, 엄마가 아파 갖고 병원비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서 병원비 했다고 들었어요.

면담자: 오래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장기 근속은 못하셨나보네요?

구술자: 어.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을까? 그때쯤까지 다녔던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마 그때쯤에 그만두시고 그전까지는 다녔던 걸로. 그래도 꽤 오래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 계속 거기 다녔었으니까.

면담자: 이 근처에 계속 사셨으니까 동양화학과 관련된 업계에 계속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혹시 그 전에 뭐 하셨는지는 모르시는 거죠? 젊은 시절에?

구술자: 아! 원래는 우리 아버지가 이발하는 거를 배웠고, 이발 그거를 좀 하시다가 아마 이쪽 인천에 와서 학익동에 있으면서 카바이트 공장을 다녔던 것 같아요.

## 5. 동양화학 공장 모습 & 인근 지역 모습에 대한 기억 (00:14:15~00:17:10)

면담자: 이쪽에 친척들도 많이 사셨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은 OCI라고 하지만 그 당시 동양화학 인근에 대해서 기억나는 모습들이 좀 있으신가요?

구술자: 굴뚝이요. 굴뚝에서 연기가 낮에는 안 나는데 아침하고 밤시간에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는 뭐를 태우는 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지.

면담자: 냄새는 어떠셨어요?

구술자: 그게 동양화학에서 나는 냄새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주말이나 뭐 이럴 때 새인



천폴장으로 가려고 대우전자 뒤로 해서 셋길로 해서 갔거든. 거기가 동양화학 뒤로 해서 카바이트 공장 지나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갈 때 카바이트 공장인지 뭔지 모르는데 하여튼 거기에 옥 색깔 나는 그런 물이 뽀글 뽀글 뽀글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들이 그게 좋은 거라고 물 퍼다가 씻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화학물질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 어렸을 때 그걸 봤을 때 수증기처럼 연기도 올라오고 이래서 되게 신기했죠.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 뭐 무슨 화학 냄새? 무슨 냄새라고 그래야 되지? 태우는 냄새는 아니고.

면담자: 락스? 소다 이런?

구술자: 락스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나는 그런 냄새 같은데, 내 상상에 그게 비슷할 것 같아. 하여튼 그런 냄새가 나고 해서 우리가 입 막고 지나가고 이랬어요.

면담자: 많이 독했나요?

구술자: 냄새가 많이 났죠. 지금 아파트 생긴 '시티오씨엘' 거기 그쪽 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봤지만, '거기 땅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살지? 냄새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SK 처음 생겼을 때 거기가 유공 단지였잖아요? 우리가 밤에 홈플러스에 올라가서 거기를 보면, 맨 처음에는 바로 짓는 게 아니라 땅을 이렇게 몇 번씩 뒤집고 하더라고. 그때 '유공에서 나온 기름이 엄청 많이 묻혀 있었는데 기름 냄새가 나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듯이, '카바이트 공장이랑 동양화학이 있었는데 그게(아파트) 생겼을 때 거기도 냄새가 나지 않을까? 그 밑에 그렇게 있는데 비 오면 올라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 6. 유공이 있었던 자리에서 어린 시절 놀았던 추억 (00:17:11~00:19:25)

면담자: 요즘 유공 자리를 흙을 뒤집고 했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그 동네 살면서도 기름 냄새를 맡기는 하셨던 거예요?

구술자: 기름 냄새 많이 났지. 집에서 있을 때라기보다도 그쪽으로 놀러 다녀서 냄새를 맡았어요. 우리 집 뒤에 공터를 우리가 놀이터라고 했어. 그 놀이터에서 놀 때 냄새나고 했지. [그림을 그리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차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유공이 들어가는 데면 여기가 공터고, 요 문 바로 앞에 여기가 집이 있었어. 이렇게 쪽쪽. 근데 이 문을 열면 이 집을 이렇게 하는데도[철문이 집을 가린다는 의미] 그렇게 집이 있어 갖고 살더라고. 여기도 물론 있었고.

면담자: 그러니까 철문을 열었을 때 집이 가려지는데도?

구술자: 어어. 거기에 다 집이 있었어.

면담자: 그 석탄 기차가 지나갈 때 매번 유공에서 문을 열어줬다는 거죠?

구술자: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차가 몇 시에 온다하는 걸 아니까는 그 시간 되면 문을 이렇게 열었다가 그러고서 석탄을 내려놓고선 다시 나오니까 한 30~40분 열어놓거든요. 그러면 열어놓은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달아놓으면 여기에 막 매달려서 놀기도 했어



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터가 있고. 거기에 돌로 된 파이프 이렇게 큰 거 있지? 사람이 들어갈 만한 돌로 된 파이프. 하수관 같은 거 큰 거. 그런 게 거기에 몇 개 있어서 거기에서도 놀고.

면담자: 위험하진 않았나요?

구술자: 그런데 그 파이프를 이렇게 놓으면(세워서 놓는다는 의미) 그게 넘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들어가서 우산 파고.

면담자: 그거 완전히 아지트가 됐겠네요.

## 7. 동양화학 인근 지역 모습에 대한 기억 (00:19:26~00:26:09)

면담자: 동양화학 뒷골목 쪽에 친척분들도 사셨고, 그중에서 고모부도 카바이트 공장에 다니셨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억은 있는지요?

구술자: [잠시 생각에 잠기셔서] 거기는.

면담자: 학익천 같은 개천을 건너가셨나요?

구술자: 그렇죠. 건너갔지.

면담자: 그쪽(현 호미마을)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미추홀경찰서 있는 쪽으로 갔던 건가요?

구술자: 거기 대우전자 있는데, 집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쪽 나가서 대우전자 있고 여기에 하천이 흘러서 여기 기차길 지나갈 때 보면 밑에 가 다 흠이였다가 여기 물 개천 흐르는 데는 이게 철도에 나무가 가로로 이렇게 있어서 물 흘러가는 게 보이고 그랬지.

면담자: 그럼 그 옆으로 살짝 이렇게 걸어 다녔던 거예요?

구술자: 옆으로 걸어 다니고 철길도 따라가기도 했지.

면담자: 워낙 빨리 가는 기차는 아니었었으니까. 그쵸?

구술자: 응. 그리고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기차가 오면 소리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요 옆길로 가고, 기차길 옆에 이쪽은 대우전자하고 이쪽은 뭐지? 동양화학 뭐 그런 공장들이 있었고 이쪽으로는 밭이 있었어요.

면담자: 그럼 현재 CGV 있는데 거기가 다 밭이었나보네요?

구술자: 밭이었어요. 거기 CGV 건너편 지금 저기 뭐 부국 사료? 거기가 석탄 공장 있고, 거기 돌아서서 보면 그쪽으로 가는 길이 밭이었지.

면담자: 이렇게 가다 보면 구멍가게도 있고 밭도 있고. 여기가 누구네 땅이네 누구네 밭이었 다더라 이렇게?

구술자: 어. 우리 밭도 있었어.

면담자: 어디에 있었을까요?

구술자: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서 부국사료 입구, 석탄 공장 지나가서 이렇게 초입에 우리 밭이 있고, 고모네 밭도 있고. 그리고 누구네 집 밭 있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면담자: 뭐 키우셨어요?



구술자: 여기 뭐 고추, 깻잎. 엄마는 아파서 못하니까 고모가 같이 했지. 고모가 하고 언니랑 가서 하고. 그리고 여기 가다 보면 구멍가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좀 더 가면 여기 마을이 있었고. 그 마을이 있는 데에 고모네가 있었고. 그 마을에서 좀 언덕으로 더 올라가면 산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는 5촌 아재. 경상도 말로는 아재라고 하는데 아저씨뻘 되는.

면담자: 삼촌?

구술자: 삼촌 아니고 아저씨. 아재라고 그러더라고. 삼촌보다 더 먼 5촌 정도.

면담자: 그런 분들 사시는 데 가서 놀고 했던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구술자: 산에 보면 아재네 집하고 그 옆집하고 두 집만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집만 있어서 집 뒤에가 그냥 마당이지. 마당 뒤에 가면 산이고. 산에서 사진도 찍고 보리수도 따 먹고 그랬는데, 그때 보리수가 참 맛있었어요.

면담자: 지금도 잘 익으면 맛있더라고요.

구술자: 그래요. 어쨌든 그러고 놀고 그랬죠.

면담자: 현재 거기가 정광 아파트 정도 될까요?

구술자: 맞아요. 맞아.

면담자: 그 길 지금 조개 고개 가는 뒷길 있는 그 라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까지 가셨으면 굉장히 활동 범위가 넓으셨네요?

구술자: 거기 친척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아재네도 아들만 넷인데, 막내가 나하고 또래고 그 다음에 셋째가 우리 셋째 언니하고 또래고. 그래서 그냥 놀러 가고 그랬어요. 또 엄마가 아프시고 하면 고모가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슬슬 고모네에 갔었죠. 고모네를 되게 자주 갔어요. 고모가 이것저것 챙겨주니까. 고모네 가면 오빠들이 너무 크니까 좋아서 그냥 그 집 가서 오빠들하고 같이 가서 놀고 하니까. 그 산 위에는 공터가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서 놀면 누가 뭐라 안 하고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많이 놀고 그랬죠.

면담자: 그러면 아까 그 고모랑 고모부가 아버지가 소개해서 왔던 그 고모부가 맞나요?

구술자: 맞아요.

면담자: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고모는?

구술자: 고모네는 오래 살았죠. 여기가 개발돼서 미추홀경찰서 생긴다 해서 팔고 나온거예요. 그때까지 살았어요.

면담자: [지도를 보면서]그럼 더 안쪽은 아니고 이쪽이었구나. 그러니까 더 안쪽 동네에는 5촌 아재가 사는 거고?

구술자: 그리고 그 고모네 앞에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했다고. 거기에 옛날에 성당 옆에 무슨 택시 회사 있잖아요?

면담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구술자: 그 고모네 집 앞이 그 택시 회사였어. 원래는 택시 회사가 생기고 나서 고모는 안 판



다고 하고 있다가 거기가 다 개발되니까 팔고 나온 거야. 고모는 오래 살았어.

면담자: 그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동양화학을 봤을 때 어르신들이 동양화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환경 문제로 인해 안 좋게 말하는 어르신들도 있었는지요?

구술자: 근데 내 생각엔 ‘동양화학이 여기 동네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 많이 살면서 많이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장미아파트 옆에 아까 무슨 방직이라고 그랬지? 거기 아줌마들은 거기 흥한 방직을 많이 다녔던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여기 사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학익동이든 여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 많이 다녔던 것 같아.

면담자: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먹여 살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공장들이 사람들에게 환경적인 문제보다는 일단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니까 좋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말씀이시죠?

구술자: 맞아요. 동양화학은 남자들이 다니고 이쪽은 여자들이 많이 다니고.

면담자: 동일레나운으로 나중에 바뀌면서도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를 저도 듣긴 했던 것 같아요.

구술자: 어. 맞아요.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퇴근할 때도 보고.

면담자: 알겠습니다. 잠시만 잠깐만 쉬겠습니다.

## 8. 인하대학교 축제에 대한 추억, 인하대학교 인근의 지역 모습 (00:26:10~00:33:13)

면담자: 그럼 그 근방에서 인하대도 가고 대학생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는 문화 생활을 즐기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구술자: 인하대학교에서 축제하면 갔죠.

면담자: 그 당시에도 축제를 했었어요?

구술자: 네. 축제할 때 친구들과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하대학교 정문 쪽에 들어가면 약간 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분수도 거기에 있고, 거기에 보면 계단이 있는데, 연예인이 와서 공연하면 거기에 다 앉아 갖고 보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인하대 정문까지 가려면 좀 걸어가야 했는데, 인하대 끄트머리쯤에 우체국에 있었어요.

면담자: 네. 이쪽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 끝 쪽에.

구술자: 우체국 길 끝에서 이렇게 담을 넘어가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렇게 가면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길이 있고, 여기는 큰길 쪽이 있는 데고.

면담자: 운동장 가는 길인 거죠?

구술자: 응. 그쪽으로 해 갖고 인하대학교 놀러 갈 때 그렇게 갔어.

면담자: [웃으면서] 돌아가는 걸 싫어해서 항상 골목길로 다녀셨나봐요?



구술자: 그렇게 가고. 그 우체국 앞이 우리 아지트였는데, 우체국 앞에 보면 약간 이렇게 등글게 돼 갖고 거기에 뭐 잔디도 있고 꽃도 심어놓고 하는데 그 밑에 사다리가 같은 게 있고, 밑에 공간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거기에 벽에 붙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정말 그때 내 생각으로는 아마 애들이었으니까 한 이만큼 넓었던 것 같아. 어렸을 때 내 키보다 조금 컸는데 거기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네모난 대리석인가? 돌 같은 게 있고 옆에 돌들이 있었어. 우리가 거길 들어가서 놀고 그랬거든.

면담자: 뚜껑이 있었나요?

구술자: 뚜껑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야. 저기 신동아 가는 길에 보면 롯데리아 바로 옆에 이렇게 꽃 심어 놓고 하는 그런 식으로 우체국 앞에 삼각형으로 산처럼 되어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가서 놀았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무서운 것 같은데, 나는 그때는 겁도 없고 했으니까 거기에 그런게 있다고 해서 애들이랑 같이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어.

면담자: 굉장히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구술자: 어.

면담자: 혹시 그 인하대 뒤쪽에 가게(접골원)가 좀 있었나요? 우체국을 따라서 용현 고개 쪽으로 가는 길은 어땠는지요?

구술자: 기성 약국, 기성한의원이 있었어.

면담자: 거기가 옛날에 야구장 뒤편이잖아요? 25년 전 제 기억으로는 그 길에 접골원이 하나 있었는데.

구술자: 아! 그 뒤로도 많이 넘어가고 그랬어. 거기가 약국이 아니야. 우체국이 지나가고 바로 옆에 상하수도? 수도 사업소? 이런 비슷한 게 있었고, 그다음에 가정집들이 있고 그 뒤에 좀 더 가면 기성약국, 기성한의원 그리고 골목길로 가면 가정집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 건너편에 '나비 전자'라고 있었어요. 나비 전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금성 삼성 제품 같은 것을 수리하는 전파사 같은 거예요. 근데 나비 전자 하시는 아저씨(사장님)이 난쟁이였어요. 약간 장애가 있었어요. 근데 모든 걸 너무 잘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쯤이라고 그래야 되냐? 고속도로 굴다리 있는 덴데, 유원 쪽 말고 반대쪽으로 인하대에서 고속도로 나가기 전 인하대 건너편 쪽이에요. 거기에 나비 전자가 있었는데, 거기 아줌마도 난쟁이처럼 두 분 다 장애가 있는데 고치는 일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 해야 되지? 19금 술집 같은 거 쪼르륵 있었어요. 거기 밑으로 인하대학교 앞 우체국 지나서 조금 올라와서 그 건너편에.

면담자: 지금 SK 아파트가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술자: 맞아요.

면담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옮겨서 저쪽에 집창촌을 이뤘나 보네요.

구술자: 아니. 여기도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 용현시장 가다 보면 시장 쪽 말고 유비스 병원 가는 쪽 라인에 있는 찻집. 옐로우는 아니고 방석집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가씨들 있는 그런 텐데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몇 군데 이렇게 있었어. 그리고 학익동 색시촌이 지금 엑슬루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진짜 낮에 지나가면 굉장히 신기했어요. 낮에 지나가면 엄청 조용하고 다 유리문이야. 나는 '왜 여기가 유리문이지?' 했어. 그때는 몰랐지. 근데 거기는 남자는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거야. 학생이든 어른이든 지나가다가 잡히면 끝장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밤에 아파 갖고 약을 사러 그 근처에 갔어. 예전에 신흥동 옐로하우스 근처 약국은 24시간 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이쪽도 약국이 있나 싶어 갖고 한 번 지나가게 됐어.

면담자: 놀라셨겠네요?

구술자: 빨간 불빛에 드레스 입은 아줌마들이 앉아서 있더라고. '아~ 여기가 색시촌이구나!' 그때 알았어.

면담자: 거기도 있었고 이쪽도 있었다. 아마 그쪽에 미군 부대가 있어서 달러촌이 형성됐다는 그 지역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 9. 연경산에 대한 기억 & 연경산 아랫마을에서의 추억 (00:33:14~00:36:09)

면담자: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이 잘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선생님 다니실 때 연경산을 바라봤을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나시나요?

구술자: 연경산? 우리 친척 아재네가 그쪽에 있어서 그 산이 연경산이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연경산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더라고. 거기가 지금 말하는 노적산 정도 되는 것 같고 연경산은 더 위를 말하는 것 같아. 내가 알기로는 그때 아재네가 있던 그 산도 되게 높은 산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면담자: 언덕이 있었으니까.

구술자: 어. 언덕이 있어서 거기에 놀이터처럼 공간이 있긴 했지만, 그 뒤로는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서 숲처럼 이루어져 있었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봤을 때 기억에 거기에는 무슨 짐승들이 살 것 같이 무섭다고 생각을 했죠.

면담자: 그러면 그 시절에 연경산이나 그 일대 산에 기름 탱크들을 세워놨다는데 그런 건 못 보셨겠네요? 나무들에 가려져서 선생님 키로는 안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구술자: 응. 나는 못 본 것 같은데, 큰 언니는 거기에 그런게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니까 학산초 건너편 저쪽, 원흥 쪽은 아니고 정광 저쪽으로 있었다고는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어요.

면담자: 그럼 고모님 살았던 마을하고 아재가 살았던 마을에 우물이 있었는데 본 기억이 있으세요?

구술자: 보기는 했는데 내가 써보지는 않았어요.

면담자: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습을 본 기억은 있으세요?



구술자: 그때 우물 같은 거를 처음 봤으면 되게 신기했을 텐데, 나는 시골에서 펌프하는 우물을 이미 봐 갖고. 그닥 그걸 보고 신기해하지를 않았어요. 우물을 봐도 ‘아! 우물이 있구나!’ 그러고 지나가고 이랬지. 요즘 같으면 지나가다 애들한테 ‘이게 펌프야! 물로 마중물 넣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긴 하는데 그때는 내가 그걸 이미 알아서 그런지 별로 신기하게 보지는 않았어.

면담자: 있기는 있었다. 한두 개 정도 보셨던 거예요?

구술자: 초입인가 중간쯤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신기해서 봤으면 기억에 남았을 텐데 그냥 쓱 지나가듯 봤고, 이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이 납니다.

## 10. 어린 시절 놀았던 놀이에 대한 이야기 (00:36:20~00:41:13)

면담자: 네. 그러면 질문할 거는 거의 다 했는데요. 선생님 혹시 이거 말고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 혹시 있을까요?

구술자: 그때 당시에 밤에 놀았던 거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요즘은 애들이 학원 다니고 그래서 놀지 않잖아요? 그때는 밥 먹고 나서 놀면 밤에는 ‘단방구’라고 아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놀이라하면 ‘경찰 도둑 놀이’인가? 뭐 그런 느낌인데, 옛날에는 단방구 해갖고선 이렇게 편을 갈라서 잡는 팀과 도망가는 팀으로 해 갖고선 전봇대나 벽에 붙어 있으면 못 잡는 거고, 누가 단방구 하면 풀어주는 거야. 그런 놀이를 했었고. 그리고 요즘에는 공기를 사서 하는데, 옛날에는 그 철길에 자갈 같은 거를 다 깔아놓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돌을 거기에서 손으로 집을 수 있는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큰 돌을 주워 갖고 공기놀이를 했어요. 공기놀이는 지금 처럼 5개짜리로 하는 게 아니라 자갈 돌을 20개씩 주워 와. 그래서 산처럼 쌓아놓고 공기 꺾기 하는 것처럼 해서 쌓아 놓은 공기 더미에다 치는 거야. 그래서 튕겨 나온 애를 하나씩 하나씩 해 갖고서 공기로 빠가는 그런 공기 놀이였어요. 요즘에 그런 거를 얘기 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내가 굉장히 재미있게 했거든. 그런 공기 놀이 했고, 그 돌들은 동네 한쪽 구석에 놓고 ‘다음 날 또 놀자!’ 하면 또 그거 끌어 갖고 와서 놀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무줄 놀이, 이런 것도 했고 남자애들이 하는 ‘말방까지’도 했는데, 그건 ‘비석치기’라고도 그랬지.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하고.

면담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주로 이 동네에서 그런 놀이를 하셨다는 거죠?

구술자: 어. 유공 옆에 그 공간에서 하고. 그리고 마을 어른들도 요즘은 부녀회 뭐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위치가 나오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삼거리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골목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여름에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아줌마들이 돛자리 놓고 여기에 앉아서 엄청 수다를 떠는 거야.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은 어땡고 이 집은 어땡고’ 이러면서 훑을 보는 거야. [하하하 웃으며] 그래서 그 아줌마들이랑 눈 마주치면 절대 안 돼.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렇게 아줌마



들이 어느 집에 가 갖고서 수다 떨고 놀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 앞 골목이 시원해서 모여 있었던 것 같아.

면담자: 먹고 살기 어려운 동네는 아니었나 봐요?

구술자: 아니 이때는 다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그리고 동네에서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고. 가끔 가다 잘 사는 집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별로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보면 애들하고 잘 놀아주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집에도 놀러 오라고 그러고. [지도를 보면서] 요 공간에 이렇게 철길이 있고, 여기에도 집이 있고, 우리 집에서 이렇게 쪽 나와서 꺾어지는 골목을 지나가면 그 공터가 나오는데, 끝 집 사는 아줌마가 시끄럽다고 탄 데 가서 놀라고 그러면서 물 뿌리고 그랬어. 저쪽 가서 놀라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 그 집 딸도 나와서 놀면 좋은데 안 나와 놀고 공부만 해.

면담자: 선생님한테는 학익동이 놀이터의 기억으로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 있으실 것 같아요.

구술자: 그렇죠. 살다가 도화동 이사 갔을 때 이쪽으로 많이 놀러 왔어요. 이사간 곳은 심심해서.

지원자: 언제 도화동으로 가셨어요?

구술자: 중2 때요. 중2 때까지 살다가 여름방학 때쯤 이사를 가고, 작은아버지네가 우리 살던 데로 왔으니까. 작은아버지가 이사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에 놀러 오고, 원래 알았던 동네 애들한테 '우리 사촌 동생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도 해 놓고.

## 11. 학익동에서 살았던 집에 대한 기억 & 비가 내릴 때의 에피소드 (00:41:14 ~ 00:50:45)

지원자: 그럼 여기로 다시 언제 오신 거예요?

구술자: 결혼해서 구미에서 살다가.

면담자: 중2 때 학익동을 떠났다가 결혼해서?

구술자: 다른 동네에서 살기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큰애 초등학교 3학년 때 동풍으로 이사 왔어요.

면담자: 동아풍림이요? 그때 왔을 때 이쪽 지역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억나는게 있으세요?

구술자: 풍림 아이원이 있었고, 학산초가 있었고. 그 위에 양토 마을 올라가는 길이 뽕 뿔러 갖고 예전과 달라진 걸 보고 '오~ 여기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러면서 감초 한의원을 기준으로 보니까 '아 여기 길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갔었지!' 그렇게 생각했지. 처음에 와서 딱 봤을 때는 '아! 옛날에 여기에는 뭐가 있었고 여기 뭐가 있었는데 이게 바뀌었네?' 그런데 되게 좀



기분 좋았던 게 홈플러스 앞에 거기가 우리가 살던 데는 재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부치지 않은 거야. 그대로 있어. 그래갖고 거기를 우리 딸하고 그 골목을 따라 옛날 집에 한번 가봤지. 딸한테 ‘엄마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알려줬지. 근데 딸이랑 같이 가서 보는데 골목이 너무 작은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때 건어물 장사 하느라고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던 골목이거든. 그게 그냥 오토바이인데 그 뒤예를 약간 철 박스처럼 해 갖고 물건들 떨어지지 말라고 만든 오토바이였거든. 이제 보니까 아버지는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길에 오토바이를 어떻게 끌고 다녔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거기 가서 보니까 좀 마음이 그랬어. ‘아~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잘 컸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지. [그림으로 그리면서] 그리고 우리 집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앞집은 여기가 화장실이고 이렇게 돌아가야지 들어가는 입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앞이 화장실이었어요. 우리 집은 부역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는 작은 애들 방, 그리고 이 방은 엄마 아빠 방이고, 여기 뒤에 뒷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집 화장실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옆에 쪽으로 화장실을 바꾼 거예요. 우리 집도 물론이고 옛날에는 부역이 일자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부역이 움푹 파여 있어 갖고. 여기에 차단스 같은 거 있고, 끈로 올려 놓고 아궁이 있고 그랬어요. 그리고 연탄 집개, 빗자루 같은 것들을 놓는 곳이 둥글게 돼 있었어요. 우리집도 옛날엔 아궁이였는데 좀 지나서 아버지가 연탄 보일러로 바꾼 거거든. 근데 비가 오면 새는 거야. 물이 들어오는 거야. 여기가 낮으니까. 그럼 여기에 물이 차면 그걸 물을 퍼냈는데, 우리 집 앞에 하수구가 있어 갖고 역류해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여기 앞이 앞집 화장실이잖아? 거기가 넘치는 거야. 그러면은 진짜 괴로웠지. 그리고 홈플러스 앞에 여기에 집이랑 철길이 있잖아요. 철길 옆에 이렇게 약간 파여져서 물 흐르는 도랑이 있었는데, 여기가 평상시에는 물이 안 흐르는데 비가 오면 물이 우리 무릎 위예까지 차요. 여름에는 애들하고 거기서 물 찼다고 놀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물이 넘쳐서 역류한 거지. 수로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흘러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가 넘쳤으니까 대부분 집들로 물이 들어오니까, 비 오면 다들 물 퍼대고 그랬던 것 같아. 왜 그렇게 집이 물이 찼는지 생각해보면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조금 올라가서 집들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계단 없이 그냥 땅이랑 집이랑 똑같이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똑같고 부역으로 또 내려가게 만들었거든. 계다가 부역도 일자가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게 만들었으니까, 물이 찰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

면담자: 학익천이 넘치기도 했나요?

구술자: 글썄. 학익천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대우전자 옆에 거기도 학익천이었는데 대우전자 옆에는 비가 오면 굉장히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 오고 난 뒤 친구들과하고 그쪽으로 놀러 간다고 대한전선<sup>4)</sup>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인형인지

4) 대우전자가 그 시절엔 대한전선이었다고 구술자가 말함



아님 마네킹 같은 거가 이렇게 옆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돌을 던져보면 마네킹이면 튕겨 나갈 것이고,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돌을 던졌는데 이게 꼭 들어가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갖고 여기 대한전선 경비 아저씨한테 얘기했어. 경비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해서 왔는데 그게 사람 시체였더라고.

면담자: 비가 오고 나면 떠밀려 내려왔었나 보네요.

구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죽지는 않았을 거다. 부패한 거 보니까 딱 데서 죽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떠내려온거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상황이 되게 끔찍한데 그때는 모르기도 하고 ‘사람이 왜 여기에?’ 이러면서 되게 신기해했던 것 같아. 심지어 우리가 시체 얼굴 본다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때는 사람 시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겁이 안 났나봐. 경찰이 와 갖고서 바리케이트 치고 이러니까 ‘진짜 사람이 죽은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그 시절에는 새벽 6시인가 5시 반 되면 쓰레기차가 와요. 쓰레기차가 오는데 아저씨가 종을 쳐요. 두부 종 치듯이 한 명 아저씨가 골목을 다니면서 종을 쳐. ‘우리 왔으니까 쓰레기 내나라!’ 하는거지.

면담자: 그때는 봉지에 담아서 안 버렸을 것 같은데요?

구술자: 봉지에 안 버리고 기름통 같은 거 있잖아요? 동그란 통.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그 아저씨가 종을 매일 아침에 와서 쳐요. 일요일만 안 오나? 아마 그럴 거야. 그러면 종소리 듣고 그걸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지금 쓰레기차하고 비슷했어. 쓰레기차가 있고, 뒤에 우리 이만큼 달게 아저씨들이 서 있으면 우리가 거기다 엎어주면 아저씨가 쓰레기 버리고 통을 던져주면 그걸 받아서 가지고 가는 거야. 그때 아저씨가 통을 던져주면 내가 잘 받아서 아줌마들 거도 받아 주고 그랬어.

면담자: 그냥 잘했다. 하하! 자기 자랑 하시는 거죠?

구술자: 어쨌든 그런 게 나는 재밌었어.

면담자: 운동 신경이 좋으셔서.

구술자: 우리 언니는 ‘그것을 왜 하는지 몰라!’라고 이러긴 했는데 나는 그때 그게 참 재미있어 갖고 했지.

면담자: 쓰레기통이라 냄새도 나고 그랬을 텐데. 그때는 음식물이든 뭐든 다 섞어서 버렸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구술자: 더러운 걸 몰랐지. 지금 생각하면 지저분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음식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면담자: 대부분 일반 쓰레기들이었던 거예요?

구술자: 왜냐하면은 먹을 것도 없어 갖고. 버릴 게 그렇게 있지가 않았던 것 같아.

면담자: 지금처럼 지저분하지는 않았겠네요.

구술자: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면담자: 좋은 미담으로 남기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새인천폴장에서 놀았던 기억이나 조개 고개 가서 조개 캐고 했던 얘기들도 한번 해 주세요. 오늘은 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지원자님께서도 질문할 내용이 있으시다면 해 주세요.

## 12. 구미에서의 삶, 아버지에 대한 짧은 소회, 인터뷰 마무리 (00:50:46~00:53:04)

지원자: 공교롭게도 구미도 공업 지역이잖아요. 여기도 공업 지역에 사셨는데 혹시 차이점이 있었나요?

구술자: 나는 구미에서 시내에 살지 않고 구미에서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시골 풍경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그게 공단 쪽에 있지는 않았는데, 여기랑 거기랑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그때는 내가 큰 애를 가졌을 당시라 바깥에도 많이 안 나가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시골스러웠다는 거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구미에서 선산이 가까웠어요. 선산에 5일장이 있어서 장날에 나가서 그런 게 더 즐거웠지. 우리 신랑도 거기에서 공단 쪽에 직장을 다닌 게 아니라 자기 사업을 해 갖고 그런 쪽으로 접한 일이 없었어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꺼리가 없는 것 같아.

면담자: 아버지께서 건어물 장사를 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은 용현동 구)시외버스 터미널에 자주 가셨나요?.

구술자: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건어물 물건을 만들어서 개인 사업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시외버스 터미널, 애관극장, 미림극장, 인형극장, 송도 유원지 거기에 다 들어갔는데, 시외버스 터미널이 최고의 VIP였죠. 거기는 원체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인하대학교 병원 쪽에 있던 구 시외버스터미널, 거기는 진짜 많았어요.

면담자: 기회가 된다면 본 면담할 때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술자: 감사합니다.

지원자: 수고하셨습니다.

\*녹취문 내용을 세부 주제로 나눠 시간 기입

글씨체 : 함초롬바탕

글씨크기 : 세부주제-12pt(볼드체 적용) / 내용-10pt

줄간격 : 200%